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금융당국, 연말배당 축소 착수…관건은 '동학개미 반발'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에 배당 축소 압박....은행권이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

금융권에선 배당 축소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져....

윤석현 "라임 판매은행 제재, 내년 2월쯤 시작"

조선일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관련 제재에 대해 "2월쯤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이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

코로나보다 무서운 '빅테크 공습'…은행장들 '디지털' 옮인

한국경제

국내 은행 15곳의 은행장이 내년도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빅테크의 공습'을 꼽아....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은 최소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핀테크가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비금융 빅테크 · 플랫폼도 지급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넓히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돈줄 찾기 어렵네…시중은행 자금 조달 시험대

데일리안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안정성이 역대 가장 나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진 것이 원인....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NSFR 개선 과정은 은행 수익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불발…가입자 불편 외면하고 의료계 눈치 본 국회

아이뉴스2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의료계의 반발을 넘지 못해....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영수증을 보험사에 발송하는 대신에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 핵심...

외국계 보험사, 매각설 재점화… 한국 철수 가속화될까

뉴데일리

외국계 생명 보험사들의 매각설이 잇따라 제기... 한국 시장 철수 움직임이 가속화....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원인...

"IFRS17 도입 등 각종 규제 강화 이슈와 푸르덴셜생명 · 오렌지라이프 매각을 기점으로 올해 외국계 생보사들의 매각설이 끊이지 않았다"

동학개미의 힘…국내 증권사, 올 3분기 실적 '팡파르'

한국경제

국내 증권사 56곳의 3분기 순이익은 2조 168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513억원(19.3%) 늘어나... ROE 3분기 누적 기준 7.0%로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증가...

"국내외 주식거래대금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탁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점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증권사 ISA, 수익률 올라도 고객 이탈 계속

뉴스토마토

증권사 ISA 상품이 두 자릿수의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고객 이탈이 계속돼... ISA 가입 고객들이 대체로 원금보장형 등 저위험 은행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분석....

"ISA 운용이 업권별로 크게 다른것은 아니지만 은행에 비해 증권사들이 초고위험 유형을 많이 보유중이고, 해외주식형을 담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